

마을구조로부터 본 한국역사마을의 경관보전에 관한 계획론적 연구

- 안동하회마을과 순천낙안읍성을 사례로 -

박연

일본고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의 역사마을을 대상으로 한 경관보전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한국의 역사마을의 현상과 제도의 전개과정을 파악한 다음, 연구 대상은 안동하회마을과 순천낙안읍성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역사마을은 근대화, 도시화, 과소화, 고령화, 관광화의 진전 등의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보전에 관해서는 제도면의 정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 및 복원과 지역개발 및 관광지로서의 정비 및 활용 면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역사마을의 보전은 문화재보호의 시점이 기본이며, 지역개발, 관광지의 활용의 시점의 환경정비가 중시되어, 역사마을의 생활, 문화, 사회, 환경형성적인 가치와 생활공간으로서의 마을의 유지 및 지속, 경관의 보전 및 창조에 초점을 둔 계획론적인 과제 설정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종래의 연구에서 결여된 마을의 사회구조, 공간구조와 경관보전에 관련된 거주자의 생활, 생업, 거주형태와 경관보전의 관련에 대해 초점을 두고, 공간구성론, 토지이용규제론적인 시점으로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마을구조로부터 역사마을의 보전을 풀어가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마을유형에는 여러 분류 방법이 있다. 역사지리학, 사회학에서는 씨족마을과 비(非)씨족마을(특히 읍성마을)의 분류가 정설이다. 하회마을은 전자, 낙안읍성은 후자의 전형적인 마을이며,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역사마을은 동족마을이 6개소, 비씨족마을의 2개소가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차이가 역사마을의 특징과 경관보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가 연구구상의 관심 및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 학술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전통마을의 대다수가 전통과학인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형성되어 있으며, 8개의 역사마을은 전부 풍수지리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부분에서 근대 이전의 마을의 공간구조를 풍

수지리와의 관계로부터 파악한 다음, 근대 이후의 마을공간의 변용과 근년의 역사마을의 경관보전에 관련된 정책, 계획, 정비사업의 전개를 정리 및 평가하고 있는 점도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이다.

II. 본론

본론 1편은 역사마을의 경관보전에 관한 「제도론」으로서, 일 본과의 비교의 시점으로부터 한국에 관한 역사마을의 보전에 관한 제도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하며, 한국의 역사마을의 실태와 특징 및 과제를 명확히 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역사마을은 8개소(중요민속문화재 7개소, 사적 1개소)가 있으며, 원형보존, 원형복원을 기본으로 하는 엄격한 경관보전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주변환경을 일체적으로 파악한 공간구조의 시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요건조물보존지구(현재 110개소) 및 문화경관 및 생활, 생업, 문화와 경관을 일체적으로 파악한 사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본론 2편과 3편에서는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2편에서는 한국 역사마을로는 최초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역사환경의 보호제도와 경관보전, 마을의 사회구조, 거주형태, 생업과 경관보전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는 하회마을은 류씨 씨족마을이며, 거주형태와 사회운영면에서 특색이 있으며 공동체의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을의 주민조직이 마을 운영 및 보전에 중심이 되어 있고, 마을 밖으로 진출이 적었다. 진출 시에도 주거 및 농지를 유지하는 “2거점거주”를 하는 세대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주거와 농지는 하회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유지하며, 2거점거주세대와 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 있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3편에서는 순천낙안읍성의 근대 이후의 토지이용, 경관의 변용에 대해 명확히 한 다음, 풍수지리에 입각한 공간구조를 파악

한 다음, 토지이용과 환경정비의 변용의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는 도시계획과 농업진흥계획 등이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경관을 보전하는 제도면의 특징, 행정주도의 적극적인 토지매입, 근대이전의 주거 및 경관의 복원에 의한 경관보전의 시스템을 명확히 하였다. 낙안읍성의 주거는 대다수가 초가집이며, 쌀농사에서 나온 이익을 주민 스스로가 지붕 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등 문화경관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성내의 공지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성외의 농지가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부터 낙안읍성과 주변경관이 보전되고 있다고 본다. 낙안읍성 성내 중심부에 장시와 광장, 공동시설의 정비, 민가의 민박으로서의 활용, 성외의 관광단지의 정비, 농업 및 관광과의 관계를 배려한 경관정비가 진행되어 온 점, 근래의 경관정비 및 환경정비와 풍수지리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종장에서는 하회마을을 낙안읍성의 연구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이하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회마을의 전통공간구조는 입지에 대해서는 “배산입수형”, 중요건축물 등의 구체적인 공간구성은 “연화부수형”이며, 낙안읍성의 입지에 대해서는 “배산형”, 구체적인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행주형”의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있는 점에 대해 현지에서 입수한 옛 지도와 풍수사로부터 증언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양 마을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풍수에 의한 입지(주산을 중심으로)와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구체적인 공간구성(당산목과 증갓집 등의 중요 건축물 등)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점, 또한 방위보다 자연지형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구체적인 공간구성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역사마을은 풍수를 바탕으로 한 공간구조를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정비도 전통공간구조의 문맥을 계승 정비하는 방침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씨족마을(읍성마을)의 낙안읍성은 계층적 혈연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회마을과 비교하였을 때 관련성이 비교적 약하며, 공동성면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낙안읍성의 경우, 읍성 전체로 보면 공동성은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3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내리, 남내리, 서내리의 각 리에 의한 공동공간(당산)에서 제사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있는 점, 또한

읍성전체(문화재보호구역 내)로서의 낙안읍성보존회가 있는 “이중구조(二重構造)”로 되어 있는 등의 사회구조면의 특징을 명확히 하였으며, 역사마을의 관리 형태에 사회구조가 영향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거주형태의 특징과 경관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회마을 112세대 안에 상시거주 70세대, 공가 14세대뿐만 아니라, 대도시 등에 거주하는 세대는 28세대이며, 강한 공동성에 의해 하회마을 밖에서 생활의 비중이 높은 세대를 지원하는 “2거점거주”자의 지원 제도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2거점거주의 경우, 약 절반가량의 세대가 서울이나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며, 2개의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회마을 외에 거주 세대에 대해서, 친인척에게 약간의 관리비를 지불하여 집과 마당 등의 관리 및 청소를 대신 행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해 공가로 남겨져 경관이 저해되지 않고 역사경관이 유지되어 있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 낙안읍성의 경우, 80세대 중 1세대만이 공가로 남겨져 있으며, 2거점거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회마을과 비교했을 때 낙안읍성은 읍성 내에 거주하든지 외부로 이주를 하는 2가지 선택을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을 밝혔다. 거주양식과 공동성에 관련해 주택과 농지의 관리, 경관보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명확히 한 점은 앞으로 역사마을을 보전 할 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마을구조(마을의 사회구조, 공간구조, 생활 및 거주와 생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한국의 역사마을의 경관을 어떻게 보전하고, 창조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상세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관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강동진(2001) 지속가능한 전통마을의 유지와 관리방법론의 개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9(5): 1-19.
2. 손용훈(2003) 韓國安東河回村と岐阜縣大野郡白川村荻町にみる歴史的景觀の管理に關する比較研究, 日本造園學會全國大會研究發表論文集, pp. 723-728.
3. 박연, 야마자키 쥬이치(2015) 韓國順天·樂安邑城における歴史的景觀保全に關する研究 -文化財保護と都市計畫の關連制度との關係に着目して-,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712: 1273-1283.
4. 박연, 야마자키 쥬이치(2016) 伝統的空間構造との対応からみた環境整備事業の展開と景觀保全 -韓國歴史的集落「順天·樂安邑城」を事例に-,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723: 1113-1122.